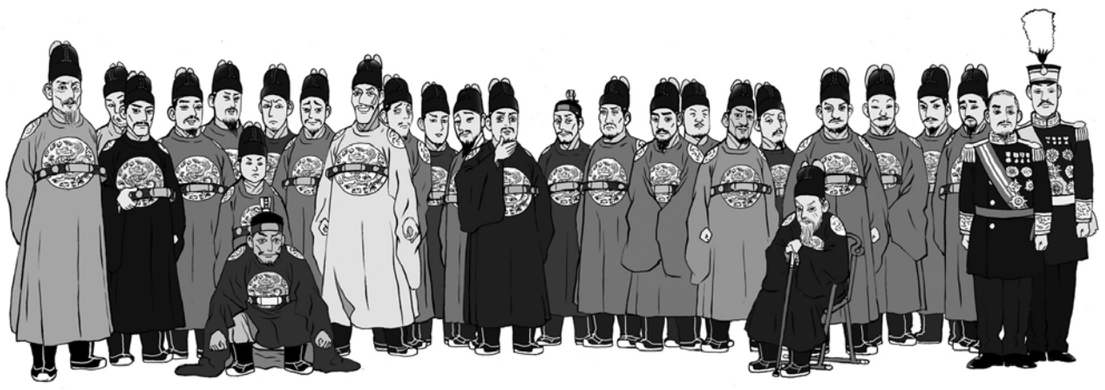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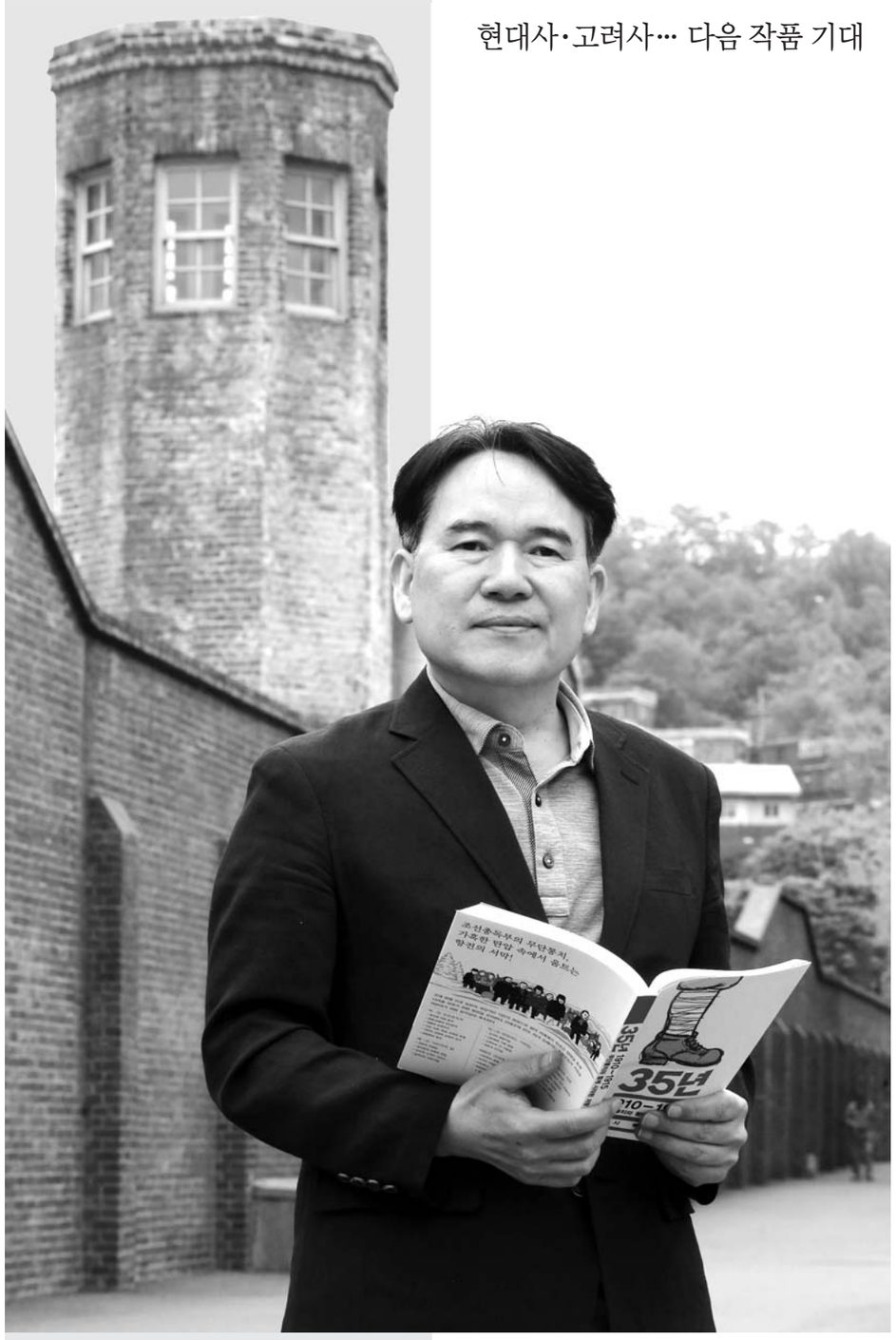
조선 정치사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만화로 떠나는 '역사여행'



〉〉〉 만화로 역사를 기록하는 박시백 화백

한겨레신문 시사만화가로 데뷔
신문사 그만둔 후 집에 칩거
13년에 걸쳐 '조선왕조실록' 출간
총 20권… 조선 정치사 담아내

일제강점기 다룬 '35년' 4·5권 출간
'재미'와 '기록'은 만화의 두 얼굴
역사만화 통해 이시대 자화상 기록
현대사·고려사… 다음 작품 기대



만화가 박시백(55)은 만화로 이 시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史官)이다. 그는 1990년대에 만평과 스토리 만화로 시대의 자화상을 그렸다. 신문사 퇴직 후에는 꼬박 13년간 '조선왕조실록'을 새로운 시각에서 쓰는 대장정에 나섰다. 현재는 일제강점기 역사와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생생하게 다루는 '35년'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일제강점 35년의 역사는 부단한, 그리고 치열한 항일투쟁의 역사다!"

◇역사 앞에서 열렬했던 독립운동가 기억해야= "적어도 그 시대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역사 앞에 열렬하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그런 노력을 최소한이나마 기억해 주는 게, 오늘을 있게 해준 그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요?"

박시백 화백은 최근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역사만화 '35년'(비아북 刊) 4·5권을 출간했다. 지난해 1월에 1~3권을 펴낸 지 1년5개월만의 일이다. 하루 7~8시간 동안 꼬박 만화작업을 했다. 4권은 '1926~1930 학생 대중아 궐기하자', 5권은 '1931~1935 만주 침공과 새로운 무장투쟁'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작가는 일본에 강제 병합돼 국권을 빼앗긴 1910년 8월 29일부터 해방된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강점기 35년 역사를 5년 단위로 잘라 모두 7권에 다룰 계획이다. '35년' 4·5권을 탈고하고 잠시 여유를 갖고 있는 박 화백을 최근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만났다. 작가가 '35년'을 본격적으로 그리기에 앞서 자료를 모으고 공부할 때 찾곤 했던 곳이다.

박 화백은 '35년' 서두에 실린 '작가의 말'을 통해 정유재란이 끝난 후 '일본군을 패퇴시킨 것은 오로지 명나라 군대의 힘이요, 조선의 군대가 한 일은 거의 없다'라고 말한 선조와 해방된 후 '해방은 오로지 미군과 원자폭탄의 덕이고, 우리가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대비시키면서 이렇게 말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일제 강점 35년의 역사는 부단한, 그리고 치열한 항일투쟁의 역사다. 비록 독립을 가져온 결정적 동인이 일본군에 대한 연합군의 승리임을 부정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한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식의 설명은 무지 혹은 의도적 왜곡이다. 자학이다."

◇생소한 사회주의자 독립운동가 활동상 소개= 그의 일제강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다 보면 여태껏 알지 못했던 많은 선각자와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게 된다. 간도에 '명동촌'을 건설한 김약연과 독립운동을 위해 가산을 처분하고 집안 차원의 망명을 한 이회영 6형제, 50여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서간도로 향한 김대락, 대한광복회를 조직한 박상진, 하와이에서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박용만 등 끊임없이 이어진다.

또한 작가는 연해주 등지에서 활동한 사회주의 계열 독립 운동가들도 빠짐없이 소개한다. 대한제국 장교출신으로 한국최초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조직한 이동휘와 연해주에서 태어나 극동인민위원회 외무위원장을 지낸 조선 최초의 볼셰비키(사회주의자)인 김 알렉산드라(1885~1918)가 대표적이다. 그녀는 아무르 강변에서 총살을 당하기 전 13걸음을 걸은 다음 마지막 진술을 한다.

"지금 내가 걸은 열세 걸음은 조선의 열세 개 도(道)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최후 모습을 작가는 한 컷의 그림 속에 담담하게 담아내 더욱 독자들에게 울림을 준다. 각 권마다 부록으로 연표와 인명사전, 사료읽기가 붙여져 있어 독자들의 '역사여행'을 돕는다. 각 책에 수록된 100여권의 참고문헌을 보면 '35년'의 탄탄한 스토리가 작가의 폭넓은 공부와 열정에서 비롯됐음을 깨닫게 된다.

"정말이지 1910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그 행적이나 쌓았던 성과가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았던 분들이 너무 많고, 물론 이름없이 사라져간 독립운동가도 너무 많아요. 가급적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 많은 투쟁들을 소개해야지 하는 게 제 의도였죠."

특히 작가는 '35년'을 집필하며 독립 운동가뿐만 아니라 친일행위를 한 인사들의 이름도 꼼꼼하게 기록한다. '을사오적'(이완용·박제순·이지용·권중현·이근택)을 비롯해 송병준, 이용구, 윤택영, 민영린, 조희연, 박영효, 신응희, 이규완, 김관현, 김윤식 등 많은 친일파 이름을 들춰낸다.

◇시사만화가에서 역사 만화가로 변신=제주 태생인 박 화백은 1996년 6월에 한겨레신문 박재동 화백의 뒤를 이어 시사만화가로 데뷔했다. 촌철살인(寸鐵殺人=사물의 핵심을 찌르는 것을 비유하는 말)의 시사만평인 '한겨레 그림판'과 스토리가 있는 따뜻한 감성의 '그림세상'을 지면에 선보여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때, 그는 TV사극을 보면서 역사에 대한 지식부족을 깨달았다. 신문사 도서실에서 틈틈이 조선사에 관한 책을 찾아 읽었다. 이런 과정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조선사가 '삼국지'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는 2001년 4월 신문사를 그만 뒀다. '조선왕조실록'의 매력에 빠져 만화로 그리는 작업을 위해서 였다. 또한 반복되지만 매번 새롭게 그려야 하는 신문만화 특성상 에너지가 소진돼 갈 때였다.

'조선 정치사'를 만화로 그리겠다며 전업 작가의 길로 나선 그는 '국역 조선왕조 실록' CD-ROM을 구입해 정독하면서 역사교양만화인 '조선왕조실록' 작업을 시작했다. 궁궐을 찾아 사진을 찍고, 자료를 찾아 헌책방을 뒤졌다. 마침내 2003년 6월에 이성계의 조선개국 과정을 담은 '조선왕조실록' 첫 권(휴머니스트 刊)이 세상에 선을 보였다. 같은 해에 '대한민국 만화대상' 장관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마지막 권인 20권이 출간된 때는 2013년. 시작부터 완간까지 꼬박 13년이 걸렸다. 그의 '조선왕조실록'작업에 대해 박재동 화백(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은 "마치 '팔만대장경'을 끌어안아보는 기분"이라고 평가했다.

작가는 '35년' 4·5권을 끝내자마자 곧장 6·7권을 그리기 위한 공부에 들어갔다. 1936년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를 다룰 예정이다. 예전에는 펜화로 그렸지만 지금은 태블릿 PC로 작업한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과 인물을 완벽하게 자기 걸로 소화해 콘티를 짜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변함없다. 누가 대신 '공부'를 해 줄 수도 없고, 콘티나 구성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늘 혼자서 '공부'하고 작업을 이끌어간다.

박 화백이 '35년'을 그리면서 겪는 애로는 '공부'다. '조선왕조실록'은 메인 사료가 딱 하나 있으니까 충실히 읽기만 하면 되는데, '35년'은 이런 책, 저런 책이 서로 충돌하면 누가 옳은지 찾아봐야 된다. 더욱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일제강점기 35년에 오늘날 한국사회의 원형(元型)이 있다'라고 말한다.

"원형이라기보다 사회의 지형인데, 여전히 각 사회의 주류는 당시 친일을 했던 세력들의 맥을 잇는 직접적인 후손이건, 이념적 후손이건 여전히 그러한 경향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한 번도 바로 세워지는 이런 과정을 못 밟은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작가에게 만화는 무엇일까? 그는 "만화는 만화다"라고 말한다. '재미'와 '기록'은 만화의 두 얼굴이다. 박시백 화백은 이 시대의 자화상을 기록하는 일에서 조선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젖히고 있다. 그의 '조선왕조실록'과 '35년' 대장정을 마친 이후 행보는 어느 방향으로 이어질까? 그는 예단하지 않는다. 해방공간이나 현대사, 또는 고려사 등 길은 모두 열려있다. 무엇보다 그의 다음 작업이 기대되는 이유다.

/글·사진=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9타경2481	1	동구 무등로532, 101동 2층 204호 [산수동,광명아파트] 144.035㎡	아파트	260,000,000 260,000,000	
2019타경2993	1	서구 금화로25, 106동 5층 501호 [금호동,금호동쌍용예가만호마을] 134.9432㎡	아파트	640,000,000 640,000,000	
2019타경62148	1	광산구 월계동 764-4 첨단두산1차아파트 104동 2층 203호 59.857㎡	아파트	141,000,000 141,000,000	
[대지/임야/전답]					
2019타경62766	1	나주시 노안면 구정리 99 374㎡	대	17,204,000 17,204,000	토지만매각,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9타경2993	2	서구 화정동 1023 한양아파트 상가동 2층 201호 51.591㎡	근린시설	298,000,000 298,000,000	일괄매각.201호,202호, 203호는복도일부를포함하여일체로이용중,각호별구분경계벽은없고,공간내는가벽을이용하여수개의강의실,상담실등으로구분하여학원용도로이용중
		동소 1023 한양아파트 상가동 2층 202호 67.431㎡	근린시설		
		동소 1023 한양아파트 상가동 2층 203호 81.471㎡	근린시설		
[자동차,중기]					
2019타경61381	1	사용본거지: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20평 등록번호:84보3752 차명:한쓰17톤장축트럭 연식:2015[구조변경있음[윙바디[양방향,뒷문:좌우,바람막이]	자동차	90,000,000 90,000,000	보관장소:광산구 동곡로430평동주차장
[기타]					
2017타경21150	1	광산구 안청동 739-7 2316.8㎡	공장용지	1,211,876,100 1,211,876,1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수변전설비및건물내,외부부합물은건물에포함하여평가되어매각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140 [안청동,가동] 486㎡ 부속건물 사무소133.1㎡ 창고347.3㎡ 화장실9㎡ 제시외 다용도실 18.4㎡	공장		
		동소 140 [안청동,나동] 486㎡ 제시외 화장실 8.1㎡[물건번호1: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기계기구CNC연삭기2점소재불명이며매각제외,컨테이너매각제외]	공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상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9. 7. 9.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9. 7. 16.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말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25.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원태